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4>

# 한 치의 실도 걸치지 않음이다

학승이 물었다. "마음이 아니면 지(智)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화상의 일구(一勾)를 부탁드립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자네 뒤에 떨어져 있네."

問非心不即智請和尚一勾師 云老僧落你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지혜라고 할 수 없다. 지(智)는 지(知)와 다르다. 지(知)는 지식이고 이것은 머릿속에 저장한 데이터일 뿐이다. 지식은 중요한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예컨대 분노가 일어나면 자비라는 글자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지(智)는 지식이 자기화 된 상태이다. 일명 진심이 들어있는 지혜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지식은 없어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조주 스님 역시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말에 이의 없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겸손하다. "노승은 자네 뒤에 떨어져 있네"라고 말한 것은 "자네가 나보다 낫군"이라는 말이다. 후배라 해도 맞는 말이면 적극 칭찬해주는 정신이 선사의 정신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필경(畢竟)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필경이다." 학승이 말했다. "어떤 것이 필경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필경이다. 자네는 질문할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학승이 말했다.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필경은 어느 곳에 있는가?"

問 如何是畢竟 師云 畢竟 學云 那箇畢竟是 師云 老僧是畢竟 你不解問者話 學云 不是不問 師云 畢竟在什麼處

필경(畢竟)은 '마지막'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마쳐지는 곳이 있다. 선(禪)도 공극의 경지가 있고, 인생도 끝나쳐지는 곳이 있다. 학승이 물은 것은 다만 필경에 대한 뜻이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조주 선사는 짧게 '필경'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학승은 어떤 것(那箇)이 필경이냐고 또 물었다. '무엇'이나 '어떤 것'은 비슷한 질문이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네가 질문할 말을 찾지 못했구나" 하고 조주 선사가 대신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필경은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 뒤에 이렇게 다시 물었다면 제대로 된 질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학승이 제대로 질문 하는 법을 알

##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지혜(智慧) 비구는 조금도 자신 소유 없어야

아서 "필경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하고 묻는다면 조주 선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본 납자에게 필경이 있는 곳을 묻는다면 "스산한 바람도 없어"라고 말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한 치의 실도 걸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걸치지 않은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한 치의 실도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훌륭한 '한 치의 실도 걸치지 않음'이구나."

問 不掛寸絲時如何 師云 不掛什麼 學云 不掛寸絲 師云 大好不掛寸絲

여기서 '한 치의 실'은 욕심을 말한다. 비구는 조금도 자기의 소유가 없어야 한다. 글자 그대로 무소유이다. 부처님은 누가 출가하면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 했다. 다만 6물(가사 3벌·물병·발우·주장자)은 허락했다. 이런 무소유의 정신은 출가의 본뜻에 부합하므로 부처님 제자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감히 불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방 불교에 와서는 겨울에 곡식을 심을 수 없고 탁발하기도 힘든 상태 부득이 곡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적당한 정도의 곡식 비축은 허락했다.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 북방에서는 약간의 소유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만 출가의 뜻에 반하는 정도의 비축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행자가 혹은 재물이 쌓이면 적당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한 톨의 곡식도 자기 이름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수행자가 이렇게 한다면 매우 훌륭한 '한 치의 실도 걸치지 않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자기의 머리가 불타고 있는 것을 구하듯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문득 배우라." 학승이 말했다. "무엇을 배우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問 如救頭燃底人如何 師云 便學 學云 什麼處 師云 莫他位次

사람이 머리에 불이 붙으면 가장 먼저 머리 위에 불 끄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것처럼 옛 조사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로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꼽았다. 깨달음은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바라고 강조한 것이다.

학승은 여구두연(如救頭燃)에 대한 조주 선사의 견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주 스님도 적극 찬성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배우라는 것이다. 부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부처의 심성을 가지고 나온 위대한 자가 자기를 알고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즉시 일평생 편안함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이 일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선지식을 만난다면 육조 스님처럼 하루 밤 만에도 가능하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희구 교수의 선어록 해제 24

## 인천안목(人天眼目)

# 선종오가 기본교의 집대성

〈禪宗五家〉

〈인천안목〉은 6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정신수대장경 제48권, 선종전서 제32권 기타에 수록되어 전한다. 대혜종고의 제4세에 해당하는 회암지소(晦巖智昭)가 1188년에 편찬한 것으로 선종오가의 종지에 대한 강요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58년에는 물초대관(物初大觀)이 중수했고, 이것이 1317년에 재간했다.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의 순서대로 종파를 분류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처음에는 종파의 종조에 대한 약전을 기술하고, 해당 종파의 조사들의 교의 및 계승 등 비교적 중시되는 교의를 정리했다. 〈인천안목〉의 끝 부분에는 '종문잡록(宗門雜錄)'이라는 제목으로 선종사에서 전승되어 온 간단한 교의 및 강요 등을 수록했고, 이어서 보유사항을 기술했다. 맨 말미에는 혜소가광(慧昭可光)의 발문이 수록돼 있다. 기타 권말에는 후서 등이 수록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 회암지소의 서문이 수록돼 있다. 제1권에는 임제의현의약전, 임제종의사오간, 흥화현인, 분양십지동진, 송원약십지문담 등이 수록돼 있다.

제2권에는 분양사구, 삼종사자, 분양삼결, 분양삼구, 분양십팔문, 구대, 황룡삼관, 남당번협심문, 임제문정, 오결, 고덕강종승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운문종에 대해서는 운문문언의약전, 삼구, 추고, 일자관, 강종계, 파동삼구, 운문문정, 오결, 고덕강종승 등이 수록돼 있다.

제3권에는 조동종의 교의를 수록했다. 곧 동산양개의약전, 오위구신, 조산삼종타, 삼종삼루, 동산삼로절인, 명안삼구, 조산사금어, 문정계, 조동문정, 오결, 고덕강종승, 보경삼매 등이 수록돼 있다.

제4권에는 위양종 및 법안종의 교의를 수록했다. 곧 위양종의 교의에 대해서는 위산영우의약전, 삼종성, 원상안기, 변제팔식, 양산임종부법계, 용담지연위사승, 삼연등, 삼조어, 위양문정, 고덕강종승 등이 수록돼 있다. 법안종의 교의에 대해서는 법안문익의 약전, 화엄육상의, 즉물계신승, 시기, 소국사종풍, 소국사사오간, 법안문정, 오결, 고덕강종승 등이 수록돼 있다.

제5권 및 제6권은 '종문잡록'이라는 제목으로 오가 종파에 관련된 기타의 교의를 수록했다. 제5권에는 연화, 삼신, 사지 석두의 '참동계', 오문, 교몽당종교오가 종파서 등이 수록돼 있다.

제6권에는 암두삼구, 조문사불전, 암두사장봉, 고덕부담관영, 종문삼인, 삼조왕자, 장노조인복보검화, 지문조연화어, 오조연천타파화, 경청문풍혈육팔, 오종문담, 보봉자감승, 원오가종요, 삼종법계, 오안, 삼보, 주장화, 구의, 육조문담, 십무문담, 일할분오교, 선림방어, 진성계 등이 수록돼 있다.

기타 보유부분에는 대원연우중간인천안목서, 용담교, 중수인천안목후집서, 폐당수경립기, 동토육조에 대한 계승, 그리고 북종, 재송도자, 우두, 영가, 운문, 설두, 천의, 대양, 투자, 운봉, 황룡, 백운 등에 대한 찬, 고산구심수승, 오가요팔 등이 수록돼 있다.

회암지소가 〈인천안목〉을 편찬하려는 의도는 그 서문에 드러나 있다. 곧 지소가 제방을 유행할 때 이르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존속들에게 오종의 강요 및 그 명목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왕왕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스승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강요의 어구는 물론이고 그 명목 및 강요의 지결(旨訣)조차 모르는 것에 개탄의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지소는 20여 년 동안 오종의 강요에 뜻을 두고서 노력했는데, 혹 유실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망가진 비문을 찾아내기도 하며, 존속(尊宿)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노남(老衲)들의 계승을 얻기도 했다.

이리하여 오종강요를 필록하면서 저장해 두었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아서 천태만년산

사(天台萬年山寺)에서 비로소 종류별로 편찬해 오종으로 나누고 〈인천안목〉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지소는 여기에 수록한 말들은 모두 한결같이 선배들이 지은 것이지 사사로이 증감을 하지 않았고, 역대 의 모든 존속들이 중생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것일 뿐 지소가 억측으로 지은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 〈인천안목〉에 수록된 교의 및 그 내용에 대한 이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보다 엄밀한 고증이 필요한 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부터 오대 초기의 100여 년 동안에 형성된 선종오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의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찬술연대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선문강요집〉 및 조선후기에 환성지안(喚醒志安)이 〈선문오종강요〉를 저술해 선종오가의 교의에 대한 이해를 계승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인천안목, 고려말, 목판본.

## 제방 두루 유행하면서 오종의 강요 물어 편찬

### 중생제도를 위한

# 덕운스님의 무료 대특강

■ 강사 : 덕운 스님 (중국역사)

■ 내용 :

- ① 사주 명리학 :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정확히 이해하므로 앞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한 대비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한다.
- ② 직장인 경전반 : 반야심경 천수경을 비롯한 불경에 대한 교리강좌를 통해 당신의 마음 수행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 ③ 응급 침뜸반 : 불자의 건강은 불자가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침뜸의 기초부터 응급대처방법까지 총망라에서 안내한다.

■ 날짜 : 12월 10일부터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활인사 (사당역 11번출구 5분거리)

■ 연락처 : 02)3487-2311

| 시 간      | 금      | 토       | 일      |
|----------|--------|---------|--------|
| 오후 2시~5시 | 사주 명리학 | 직장인 경전반 | 응급 침뜸반 |

강의실 사정상 각반은 선착순 30명만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요망합니다.

◆ 3개월 완성 ◆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6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2월

◆ 개강일시 : 2010년 12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